

# 엄마의 몽녀니

심유진

생명과학을 전공하고 신재생에너지를 생업으로 하는 한 50대 가장이 TV앞을 서성이며 열변을 토한다.

“마! 한국은 물 부족 국가가 아니라! 물 서터레스 국가라꼬!”

“서터레스가 아니고 스트레스.. 서 아니고 스..”

“그래! 서터레써!!”

경상도 사투리가 짙은 그의 정체는 우리 아빠다. 물절약에 대한 공익광고가 나올 때마다 아빠는 소파에서 벌떡 일어나, 한국은 물 사용에 제약을 받는 ‘물 부족’국가가 아닌 물 사용량에 대해 항상 경각심을 갖고 환경보호에 대해 한층 더 유념해야 하는 ‘물 스트레스’국가임을 강조했다. 아빠의 뒤로, TV에서는 매년 올라가는 지구의 온도와 집을 잃어가는 북극곰, 해저도시로 잠길 위기에 처해진 저고도의 섬나라를 보여주며 지구의 내일을 위한 오늘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호소하고 있었다. 물론 TV보다 내 시야를 더 꽉 채우고 있는 아빠의 일장연설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내년의 물과 맑은 공기는 누구도 보장해주지 않으니, 국가차원의 재활용 생활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부분이 이제 막 마무리 될 즈음이었다.

“어머, 우리 몽녀니 올해도 왔네~”

빨래를 널던 우리 집 서울아가씨, 엄마다. 저층에 사는 우리 집은 베란다 창문 너머로 목련나무가 한가득 보였는데, 엄마는 매 해 봄마다 피는 목련꽃을 ‘몽녀니’라며 마치 ‘김목련’‘최목련’이라도 되는 듯, 애정어린 목소리로 목련을 부르곤 했다. 봄마다 오는 엄마의 막내아들, 아니면 딸? 아니, 막내몽녀니였다.

엄마의 목소리로 목련을 향해 시선이 모아졌고, 열변을 토하던 친환경 척척박사님은 다시 주제를 환기하셨다. 이번엔 ‘아파트 녹지 조성’에 대한 주제였다. 아파트 단지의 일부분은 의무적으로 녹지를 조성해야 하는데 벌레, 낙엽, 불만족스러운 조경 등을 이유로 결국에는 뒤뜰이나 옥상에 형식적으로나마 녹지를 조성하며 할당량을 꾸역꾸역 채운다는 내용이었다.

“목련이는 그래도 이쁘니까네 저래 살지~ 만약 꽃 안피제? 그음방 뵈을끼다.”

“목련이 아니고 목련~ 그리고 요즘 호수뷰나 숲뷰도 유행이라던데? 멋있잖아” 한강뷰가 근사한 집 사진을 보여주자, 아빠는 못마땅히 혀를 끌끌 차셨다.

“멋있는거 볼라카문 그림이나 걸지 와 창문은 뚫노, 즈그 집 앞 나무는 다 베뿌고”

‘자연은 그저 볼거리가 아니다’라는 아빠의 말에 천천히 고개가 고덕여졌다.

실로 그렇다. 우리에게 자연은 그저 멋진 풍광을 제공하는 도구가 아니다. 그렇다고, 아마존의 밀림과 북극의 빙하, 사막의 모래만이 자연인 것도 아니다. 당장 우리 집 앞 나무 한그루마저, 우리의 삶 속 자연인 것이다. 미디어가 보여주는 '파괴되어가는 지구'의 울부짖는 북극곰과 어미를 잃은 아기 원숭이만이 생태계 파괴의 피해자가 아니었다. 우리 모두가, 제 집 앞 자연 하나 갖지 못하는 피해자이자, 가해자였다.

미디어에서 전 지구적 생태계 문제를 다룬다면, 일상의 환경다큐는 우리 엄마에게서 엿볼 수 있다. 정확히 말하면, 엄마의 몽녀니 말이다.

“요즘같이 선선한 때에는 촛대처럼 봉우리가 총총 올라와, 그러다가 봄이 완연해지면 얼마나 풍성하게 피는지, 엄마는 봄 되면 항상 창문 활짝 열어놔 바람이 불면 그 달코옴한 목련냄새가 ‘아줌마~ 봄이에요~’하는데 얼마나 반가운지 몰라~”

봉우리를 맺은 목련나무를 보며 엄마는 목련이 그리도 좋은 이유를 설명해주곤 했다. 집 앞 목련나무는 엄마가 봄을 느끼는 순간이자, 행복한 1년의 기다림이었다.

한 심리전문가는 말했다. ‘마음이 건강한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은 계절의 변화를 아는 것’이라고. 이 말을 전해들은 난 엄마부터 떠올랐다. 엄마는 매년 목련내음과 함께 봄이 왔음을 알고, 몽녀니가 떠난 자리 푸른 이파리가 무성해짐을 볼 때, 여름이 왔음을 깨달았겠지. 이윽고 가을이 오고 낙엽이 쓸리는 소리를 듣다, 소복소복 목련나무 가지에 눈꽃이 무성해지는 그 모습을 보며 엄마는 또다시 봄을 고대했을 것이다. 그렇게 엄마의 마음건강은 온전히 몽녀니의 생애와 함께 매 해 더 건강해졌으리라. 집 앞 단 한그루의 자연이 우리 엄마 마음의 1년을 아니 매 해를, 책임졌다 할 수 있겠다.

시간이 흐르고, 성인이 된 나는 자취를 하며 직장에 다녔다. 하지만 19년 코로나가 전 세계를 집어삼켰고 이제 막 직장생활을 시작한 나는 경력이랄 것도 없이 직장에서 쫓겨나왔다. 위축된 경기에 경력없는 신입은 발 디딜 틈이 없었고, 결국 일용직을 전전하며 청춘의 첫 단추가 실패로 끝난 것에 대해 끝없는 좌절감으로 하루하루를 보냈다, 봄을 느껴본지가 언제인가 그저 더워 일하기 힘들고 추워 출근하기 싫었던 나날들의 연속이었다.

직장을 잃고 뜬금없이 가족과의 연락, 어렵פות이 엄마는 나의 우울감을 직감한 듯 했다. 뜬금없이 엄마로부터 사진 한 장이 긴 문자와 함께 도착했다.

‘딸, 올해도 목련이 폈다. 올해도 봄이 왔어. 이번 봄은 좀 추웠는데 너무 일찍 피는 바람에 금방 질까 걱정이네. 우리 딸도 어린 나이에 일찍 추운 날을 만나게 된 것 같네. 걱정하지 마, 그래도 봄은 또 올테고 너도 꼭 다시 필거야. 집에 한번 들러, 엄마랑 그네타러 가자.’ 올해 핀 목련 한 다발과 함께 사진 속

엄마는 활짝 웃고 있었다. 마치 모든게 괜찮다는 듯.

엄마의 사진이 담긴 핸드폰을 끌어안고 한참이나 울었다. 다 큰 딸이 '엄마 엄마'를 부르짖으며 한참을 말이다. 긴 겨울과 같은 일상 속, 엄마는 나의 목련이었다. 집 앞 작은 자연은 엄마와 나의 희망이 되었다.

그렇게 일용직과 재택알바를 병행하며 정신없는 일상을 보내고 오랜만에 본가로 향했다. 때는 바야흐로 가을, 멋들어진 단풍이 든 목련나무를 기대하며 아파트 단지로 다가섰을 때 난 의외의 인물, 아니 나무에게서 시선을 빼앗겼다. 바로 아파트 입구의 돌사과 나무였다.

초등학생 때엔 친구와 함께 오렌지맛 슬러시를 사들고 울창한 돌사과 나무 그늘 아래서 혀가 주황색이 되도록 먹다 헤어지곤 했다. 등 뒤 나무에서 빼앗 울던 매미소리가 아직도 귀에 선하다. 가을이면 떨어진 돌사과 열매를 한알씩 차며 학교로 향하던 기억도 난다. 하지만 추억이 무색하게도, 돌사과 나무는 무참히 베어져있었다. 더 이상 이파리도, 가지도 없이 그저 나이트만 버젓이 내놓으며 제 품 하나 내주지 못하는 신세가 되어있었다. 지난 날 아빠가 해준 말이 떠올랐다. '즈그 집 앞 나무는 다 베뿌고' 정말 그랬다.

"돌사과 나무, 언제 저렇게 된거야?" 집에 들어서자마자 나무부터 물었다.

"올해 여름 오기 전에 뺐지 아마? 여름에 송충이도 많고, 가을이면 열매가 다 으깨져서 낙엽 쓸기 힘들다고 뺐었던거 같아"

"사과나무에서 사과 떨어진다고 벨 건 또 뭐야" 괜스레 추억도 베어내진 듯 해, 볼멘소리가 튀어나왔다. 세상에서 경비아저씨가 제일 미워질 참이었다.

"그래도 아직 몽녀니는 건재하니까 다행이지, 이거봐봐 올해 얼마나 이쁘게 폼나"

엄마는 날 소파에 앉혀놓고 올해 찍은 목련 사진들을 하나하나 넘기며 보여주었다. 다 같은 한 떨기 목련인 것 같아도 엄마에겐 봄을 물어다 준 제각기 다른 막내들이란 듯이 한껏 들떠있었다. 두 모녀가 함께 핸드폰을 보고 있으니, 아빠도 슬그머니 당신이 찍은 목련사진을 보여주었다.

"아유 이 화알짝 핀건 작년 몽녀니지! 작년에 좀 더웠잖아 꽃잎이 아주 흐드러지게 폼났어. 화알짝!" 엄마는 몽녀니 얼굴만 보고도 그 해를 기억해내곤 했다.

그래, 몽녀니는 건재하니 다행이지 싶었다. 베란다 창문 너머 그대로 한 폭 가득 담겨있는 저 목련나무가 건재하길 다시 한 번 빌었다. 그건 마치 매 해 엄마의 희망과 행복이 유지되길 바라는 것과 같았으니까.

삶을 살아가며 단 한포기의 풀도 마주하지 않고 살아갈 순 없다. 오히려 '회색도시'라며 비난받기 일수일 것이다. 하여 자연물을 우리의 삶에 함께하고자 한다면, 그들의 '자연'이라는 정체성을 존중해줘야 하는 것이 아닐까. 낙엽부터

열매, 벌레부터 향기까지 자연물이라면 그들의 삶에 따르는 그 모든 것을 이해할 때 우리는 비로소 자연과 함께할 수 있다. 그들은 플라스틱 조화도, 스티로폼 조각도 아닌 그들의 생애를 가진 자연물이기에. 이 한줄기의 생각에 베어진 돌사와 나무가 더 깊게 뇌리에 스쳤다.

어린 시절, 그 아래서 나눴던 이야기와 그 곁에서 나뭇잎 사이로 올려다보던 햇볕, 밤이면 가로등 불빛에 멋들어지게 빛나던 녹음을 기억해냈다. 그 추억 속에서나마 그의 찬란했던 순간을 새겨주었다. 한 그루의 나무로 심어져 자연의 행복을 선사했지만 끝끝내 공해로밖엔 치부되지 못한 돌사와 나무로부터의 자연을 기리며.

“내년 봄은 언제 오려나, 올해보단 더 따듯할 때 천천히 피어서 더 오래 행복하게 퍼있었음 좋겠다.”엄마는 핸드폰 커버를 닫으며 목련나무를 바라보았고

“아지매요, 아직 가을도 다 안 갔심데이” 아빠는 여전히 자연에 대해선 이성적이었다.

“그러지 말어, 몽녀니엄마 기다리다 울어” 난 아빠의 옆구리를 쿡 찔렀고 셋 모두 웃음이 터져 나왔다. 집 앞 작은 자연으로 함께하는 여느 때와 같은 자연적인 웃음이었다.

물 절약 캠페인부터 해서 미디어로 전하는 전 지구적 환경위기, 아빠가 전해주는 국가적 차원의 제도마련까지 모두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한 중대한 사안임은 틀림없다. 하지만 그 전에, 우리 집 앞 자연에게 귀를 기울여보는 건 어떨까.

자신의 집 앞 작은 자연은 매년 그들의 생애에 최선을 다 하며 우리에게 자연의 흐름과 계절의 색다름을 선사하곤 한다. 우리가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때, 비로소 자연을 위한다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여름에 시끄럽게 우는 매미소리와 싸르륵 가을이면 낙엽이 휘날리는 소리, 포득포득 눈꽃이 쌓여 이내 떨어지는 소리 그리고 다시 봄이 와, 꽃 내음을 담고 흐르는 바람소리까지 이 모든 것에서 계절을 읽어낼 때, 우린 곧 그 자연과 함께 흘러가는 우리네 삶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그들로부터 파생되는 것에 대해 공해가 아닌 자연물이기에 생겨난 또 다른 자연임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자연과 함께하는 삶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파괴적인 이미지와 비극적인 상황으로 생태계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당장 오늘 아침 마주한 꽃 한 떨기에서라도 우리는 자연을 볼 수 있어야한다. 그 곁을 지났을 벌 한 마리와 나비 두 마리, 비온 뒤의 지렁이와 꽃잎 아래서 비를 피했을 달팽이까지, 우리 주변에서 함께 하고 있는 자연생태계, 녹지에 우리는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집 앞 작은 나무 한그루에서도 매년 희망은 피어난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연을 조금 더 가까이 보아야한다. 과연 우리가 보호해야 하는 것은 북극의 빙하와 아마존의 밀림, 어미 잃은 원숭이가 속한 자연이 전부일까. 우리가 보호하고 관심을 가져줄 자연은 멀지 않다. 창문 앞 풀 한포기, 어느 한 순간 공해로 치부되어버릴지도 모르는 그들의 삶을 들여다 볼 일이다. 목련으로부터 희망과 삶을 엿보던 우리 엄마와 같이.